

# “벗어나고 싶었던 바다, 이젠 안식 주는 공간”

장흥출신 이숨 시인 시산책 감성기획시선 공모 당선 '구름 아나키스트' 발간...2018년 등단후 첫 작품집 시 치료사로 활동...“시 쓰기로 우울감 떨칠 수 있어”



“천관산이 있고 발과 는, 바다가 펼쳐져 있는 장흥 정남진은 나의 고향입니다. 어린 시절 천관산 위에 뜬 새벽별을 보며 ‘빨간 머리 앤’의 소녀 주인공처럼 낭만적인 정서를 품었어. 그러나 점차 자라면서는 갯벌과 바다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부모님의 고달픈 삶의 현장을 보곤 했죠.”

기획시선공모 당선 시집인 ‘구름 아나키스트’를 발간했다. 2018년 ‘작각의 시학’으로 등단해 동대문학상, ‘시끌리오’ 작품상을 수상한 시인의 첫 번째 작품집이다.

“2018년 등단 이후 운동 시에 빠져 생활했어요. 다양한 시집을 밥 먹듯이 읽으며 시적인 감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을 들였죠.”

누군가에게 바다는 휴가철 떠나는 여행지이거나, 삶의 실의를 달고 일어설기 위해 찾아가는 곳이기도 하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이들에게 바다는 창작의 영감을 불어넣는 원초적 공간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찰자적 시점일 뿐이다.

작품집 발간 소식을 전해오는 시인에게선 첫 시집에 대한 설렘이 느껴졌다. 아마도 그 설렘의 기저에는 유년 시절, 빨간 고무신을 밟며 꼬막을 캐던 어머니의 숨결도 드리워져 있을 터였다. 바다의 감성과 고향은 시의 자양분이 되었을 것이다. “3년 간 시를 쓰는데 적잖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느라 기진맥진한 상태였구요. 시집 출간은 성취의 기쁨과 아울러 저에게 주는 보상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토대로 생업을 꾸려가는 이들에게는 ‘돈을 벌어야’ 하는 고행의 현장이다. 겨울철 살을 에는 바람을 견디며 시린 손으로 물일을 하는 어부들은 바다 앞에 겸손하다. 고단한 일상과 노동을 통해 비로소 오늘과 내일의 삶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숨 시인은 이번 작품집 전체적인 정서는 ‘슬픔’이라고 얘기했다. “사물을 바라보는 정서가 슬픔”이라 연민과 사랑을 동시적으로 투영했다는 것이다. 흔히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말이 있는데, 시인의 시적 형상화 방식을 이르는 말일 수도 있겠다. 어쩌면 장흥 정남진 바다가 키운 질긴 생명력과 원초적 바다가 주는 우울

과 슬픔의 그림자일 수도 있다. “바닷가 출신들은 어린 시절 대도시를 갈망하는 성향이 있지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렇게 벗어나고 싶은 바다가 어른이 된 후로는 살아 숨 쉬는, 내 안의 안식을 주는 공간으로 전이됩니다.”

현재 거주하는 곳은 시흥시 오이도와 소래포구 인근인데, 고향 장흥 관산의 고마리와 유사하다. 지금도 휴가철이나 문학 행사가 있으면 곧잘 고향을 찾는다.

이번 시집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 ‘낙타의 세계’, 2부 ‘도약을 위한 사자의 세계’, 3부 ‘여전히 꿈을 꾸는 사자의 단계’, 4부 ‘어린이의 단계’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적인 주제는 ‘전복’입니다. 시집의 제목과 ‘구름의 아나키스트’와 연동되는 부분인데, 발버둥으로 슬픔을 다 쏟

은 후에 비로소 전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의미지요.”

맹문재 시인은 “바다와 바람이 서로의 손을 잡고 멀리 씨를 퍼뜨리듯이 시인은 물결과 바람결에 몸을 싣고 새로운 산란지를 찾아 은하수까지 날아오른 것”이라고 평한다. “바다의 얼굴을 쓰다듬고 바람에 말을 거는 고마리 같은 얼굴”로 그렇게 창공으로 날아오른다고 부연한다.

현재 시인은 시를 매개로 내면을 치유하는 시치료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대상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을 짜서 시를 소통의 매개로 활용하는 일이다. 시를 쓰고 읽는 행위는 인간이 지닌 속성 가운데 하나인 외로움을 견디게 해준다는 게 그녀의 지론이다.

“코로나19 탓에 코로나 블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 쓰기를 하면서 관계적인 소통을 이어간다면 우울감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본질적으로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죠.”

시 쓰기의 시작과 과정, 마무리의 사람과 삶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다보면 시가 주는 희망과 위로를 느낄 수 있다. 시가 만능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삶의 비탄이나 절규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다는 말이 하나의 명언처럼 다가온다.

시인은 앞으로 꾸준히 창작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그녀에게 “시는 바다”이자 “어머니의 자궁 속 양수에서 헤엄을 치는 평안의 존재”이므로.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창작오페라 ‘학동엄마’ 온라인으로 본다

빛소리오페라단, 29일 페이스북 생중계

사단법인 빛소리오페라단이 창작오페라 ‘학동엄마’를 온라인으로 선보인다. 29일 오후 3시.

지난 2015년 초연 이후 꾸준히 관객과 만나온 이번 공연은 광주시 2020문화예술진흥민간단체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11월(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3시)까지 열린다. 이날 공연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객으로 진행, 광주아트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gwangjuarthall)을 통해 생중계한다.

‘학동엄마’는 광주시 동구 학동의 지역적 이야기를 소재로 평범한 여성이 9남매 아이들의 엄마가 되고, 아이들을 위해 자

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훌륭한 사회의 일꾼으로 키워내는 여성상을 재조명한 작품이다.

이번 공연에는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협연 및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견성악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한다. 총감독은 광주대 교수인 최덕식 빛소리오페라단 단장이, 작곡은 한국창작작곡가협회 하계재 회장이 맡았으며 박미에 광주대 교수가 연출했다. 또 임영란·윤희정·장호영·이원용·장희정·한아름·박정희·박정현·조현서·김용덕·김승지·김연수·류승민·김우성·김재후·김주영 등이 출연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빛소리오페라단은 ‘학동엄마’를 오는 29일 오후 3시 온라인을 통해 선보인다.

# 미 서남부 여행 모티브 환상적인 바다이야기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 김복 회장 동화집 ‘샌프란시스코...’ 펴내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 회장인 김복 동화작가가 미국의 서남부 지역을 다녀왔던 여행을 모티브로 동화집을 펴내 눈길을 끈다.

모두 여덟 편이 실린 ‘샌프란시스코 바다이야기’ (고향)는 모하비 사막에 걸쳐 있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유타주 등의 다양한 지역을 둘러보고 얻은 영감이 작품이 됐다. ‘여행동화’ 또는 ‘기행동화’인 이번 작품집은 사실과 상상력, 재미가 결합된 결과물이다.

시공을 초월한 상상력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들며 환상적인 이야기를 끌어낸다. 표제작 ‘샌프란시스코 바다 이야기’는 샌프란시스코 바다의 어류를 ‘바다 학교’라는 동화적 상상력으로 풀어낸다.

역사 교사인 대왕 가오리를 중심으로 한다. 여기에 바다사자, 물개, 갈매기, 백상어 등 해양생물이 등장인물로 나온다. 이들을 통해 저자는 샌프란시스코의 생태 환경을 생생하고 친근감 있게 묘사한다.

특히 책에는 저자가 생태여행을 하면서 찍은 사진이 삽화로 수록돼 있어 동화의 이해를 돕는 한편 생생한 현장감을 준다.

시인인 김관식 평론가는 “‘샌프란시스코 바다 이야기’는 외국의 여행이 잦은 오늘날, 다른 나라의 생태환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들의 이야기로, 세계화의 시대적 조류를 반영했다”며 “우리와 다른 생태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동식물들의 모습과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을 동화적인 미학으로 이끌어냈다”고 평한다.

한편 김복 동화작가는 1975년 중앙일보 소년중앙에 동화가,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돼 등단했으며 한국동화문학상, 전남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동화집 ‘날개달린 장사’, ‘끼치야 끼치야 현이 줄게 새 이 다오’를 비롯해 시집 ‘누렁이’, 연구집 ‘흰구름이거나 꽃잎이 거나’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길고양이 소재 포용·나눔의 소중함 담아

안오일 작가 동화 ‘으라차차 길고양이 나가신다!’ 펴내

길고양이를 소재로 연대의 힘과 나누고 포용하는 마음의 소중함을 그린 동화가 발간됐다.



안오일 작가가 펴낸 ‘으라차차 길고양이 나가신다!’ (뜨인돌 어린이)는 ‘함께 할 때 용기를 낼 수 있다는 의미’를 준다.

연두는 콤플렉스를 들킬까 조심스러워하는 자신과 달리 아픔을 이겨내고 주변 친구들을 돌봐주는 감이와 지내며 자신을 사랑 하는 법을 깨닫는다. 점차 주변 일에도 관심을 가지며 자신감을 갖게 된다. 이를 계기로 감이와 연두는 동네 곳곳에 숨어 있는 친구들을 향해 손을 내민다.

동화는 연약하고 외로운 연두라는 고양이이를 주인공으로 펼쳐진다. 연두는 주변 고양이들이 자신들과 외모가 다르다며 괴롭히는 탓에 한쪽 눈을 천으로 가리고 지낸다. 매사 자신이 없지만, 새 친구 감이를 만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경험을 한다. 감이는 사고로 잘려 나간 꼬리를 아무렇지 않은 듯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저자는 감이라는 고양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들려준다. “그런데 말이지.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용기를 낼 수가 없어. 나쁜 행동 앞에서도

“그건 울지 않아”하고 말할 수도 없게 되는 거야.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할 말이 있어도 없는 척, 그렇게 살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없는 거지.”

동화는 모든 고양이와 고양이와 동물을 좋아하는 방현일 작가의 그림이 더해져 보는 맛도 더해준다. 고양이의 특징을 포착한 그림은 생동감과 아울러 친근함을 준다.

한편 안 작가는 광주대 대학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으며 2007년 전남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푸른문학상, 한국안데르센상, 눈높이아동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동화책 ‘울쟁이 아빠’, ‘천하무적 왕눈이’, ‘이대묘가 아닌 이대묘’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특별 개정안 협의체 구성 요구 아시아문화원 노조

아시아문화원 노조가 지난 13일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구)이 대표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노조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아시아문화원 노조는 “아특별 개정안 발의 전, 문화전당과 문화원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평가가 선행돼야 함에도 이 과정이 생략됐다”며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2호’에 따르면 현행법과는 다르게 문화원을 두 개로 쪼개서 일부는 문화전당으로 흡수하고 일부는 재단을 설립해 이관하는 방식으로 문화원을 해산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문제 가 있다고 할 경우 문제의 진단과 개선조치 없이 조직을 해산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상식적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평범한 사람의 **사회생활** 이야기

##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다.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냐 안 들 것이냐가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냐 죽게 될 것이냐가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냐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악수하기에 바빠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서점 판매 | 광주(충장서림, 삼복서점, 초원서점), 순천(중앙서점), 여수(대양서림), 전주(웅진서적, 민중서관, 흥지서림)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에스24, 알라딘, 영풍문고(배송료 무료)